

광주은행 창립 56주년...지역상생 등 4대 비전 선포

동구 대인동 본점서 기념식...감사고객 감사패·우수직원 표창 고병일 은행장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100년 은행 성장해 갈 것”

광주은행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지역과 더 밀착하는 상생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성장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고객 가치를 돌보는 지역은행 기본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광주은행은 20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광주은행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감사고객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고객에게 감사패를, 우수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광주은행의 56주년을 빛낸 고객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광주은행이 지역과 상생하며 성장해온 지난 56년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고, 향후 광주은행의 미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고 은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금융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언제나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

지역민들 덕분에 총자산 31조원에 이르는 광주 전남 대표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지역민들의 금융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은행장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광주 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등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해 ▲지역밀착 상생경영 실천 ▲핀테크·플랫폼 제휴와 협업을 통한 미래역거리 발굴 ▲고객중심 가치 실현 ▲다시 기본에서 출발 등 4대 전략을 선언했다.

우선 광주은행은 지역밀착 상생경영 실현을 위해 기업금융 조직과 지역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광주은행이 토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함께대출’의 지원 강화 및 외국인



20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광주은행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감사고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금융 영역을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 56년간 지역과 상생하며 축적한 광주은행만의 노하우를 통한 유연한 금융서비스 제공, 임직원의 윤리 의식 확립을 통한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고객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11월 20일, ‘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및 중저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기치로 자본금 1억5000만원, 총직원 50여명으로 광주에 뿌리를 내려, 현재 총자산 31조원, 영업점

123개, 총직원수 1700여명의 광주·전남지역 대표 향토 은행으로 성장했다.

광주은행은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과 293억원의 민생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꽃피는 꿈나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밀착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이같은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난 8월 공개된 ‘지역재투자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역재투자평가는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발전·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은행은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7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초우량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소기업 74% 내년 수출 증가 전망...43% “트럼프 영향 없어”

“해외전시회 파견 확대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300개 중 74.3%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은 ‘0~4%’(34%)가 가장 높았고, 분야별로 보면 의료바이오 품목의 수

출 증가 응답이 87.1%로 평균보다 높았다. 수출 증가 이유로는 신제품 출시 및 품질 개선 등 제품 경쟁력 상승(45.7%), 제품 선호도 증가(43%),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 개선(16.6%),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15.2%) 등이 꼽혔다.

수출 실적 감소가 전망되는 기업은 품질개선 또는 신상품출시(57.1%)와 수출시장 적극 다변화(53.2%)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는 복수 응답(1·2·3순위)으로 ‘해외전시회 파견 확대’가 54.7%로 가장 많

았고 ‘신규 바이어 발굴 지원 강화’ 51.3%, ‘주요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 4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 기업이 30.7%, 중국 기업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기업은 15.0%로 각각 집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상공대상 시상식 광주상공회의소는 20일 창립 제88주년 기념 ‘제12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제용 기아 광주공장장 등 5명이 부문별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다목적하우즈 진수연 부사장 등 12명이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았다.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에 참여한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부문별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영·호남 첨단 방위산업 육성 손 잡았다

광주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과 협약...협력사업 발굴·기술지원



영호남 첨단방위산업 분야 육성 및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주)창원산업진흥원 8층 회의실. (주)창원산업진흥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협의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제3회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 전남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협의회는 올해부터 지원 기관과 소상공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중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14개 지원기관과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 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또 은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오는 12월 전국민 소비축진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밖에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금 정책을 안내했으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역 공공 배대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앞으로도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건의사항을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비맥주, ‘2024 협력사 지속가능성 워크숍’



2024 오비맥주 협력사 지속가능성-SSA 워크숍

오비맥주가 지난 19일 협력사들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향상을 돕고 상생 발전하기 위한 ‘2024 협력사 지속가능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포장재, 원재료, 물류, 간접비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비맥주와 협력하고 있는 21개 업체가 참여했다. 오비맥주에서도 구매팀, 한국생산운영&설비투자팀, 양조&품질보증팀은 물론 이천, 청주, 광주 생산공장 등 여러 부문의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오비맥주는 주류업계 최초로 2010년 제조사와 중소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동반성장 다짐대회’를 실시하고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친환경 측면에서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집중하고 초청 범위를 넓히고자 ‘협력사 지속가능성 워크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4 협력사 지속가능성 워크숍에서는 협력사별 우수 탄소감축 로드맵 발표와 관련 정책 및 기술 교육이 실시됐다.

이어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선도한 10개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오비맥주의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성 향상 또한 주요 과제”라며 “앞으로도 협력업체들이 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의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진도 기업 지원 협의 워크숍

(재)전남테크노파크 소속 전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 19일까지 이틀간 진도 솔비치 다이아몬드홀에서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기관 협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진도군 소재 중소기업 20여개사와 지자체, 기업 컨설팅 자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업체 등은 1차년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진도군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기여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사업 추진 현황 보고, 트렌드 상품 개발과 챗 GPT 활용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사 초청 강연, 브랜드 전략·마케팅(유통)·수출전략·사업 기획·제품 개발 전문가와 지원 기업 간 1:1 심층멘토링, 운영위원 간담회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었다.

진도군은 ‘진도 울금 등 특산자원을 활용한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과제로 지난 2023년말 ‘S’ 등급 평가 지자체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약 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사·군에 자리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확실적인 지원이 아닌, 기업의 개별적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가장 실용적이다”며 “전남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을 이끌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도내 메타버스 기업 잇단 해외진출 성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산하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메타버스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 진출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는 전남도내 실감콘텐츠 보유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최근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실감콘텐츠 제품 시장진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9월 태국 IMPACT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태국 국립과학기술전’에 한·아세안 ICT융합발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메타버스 지원센터 5개 기관과 한국 공동관을 운영해 전남 기업이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기술력과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뉴작은 XR 기반 슈팅 훈련 시뮬레이터, (주)스마트큐브는 자체 플랫폼인 ‘월드(WILLD)’ 내 버추얼 휴먼 관광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각각 선보이며 14건의 상담 건수와 상담액 37만1353달러를 달성했다. 해외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받은 (주)뉴작과 (주)스마트큐브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주)뉴작은 XR 플랫폼 ‘X-RUNNER’를 통해 ‘CES 2025’에서 메타버스와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며 전라남도 메타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를 통해 전남 메타버스 기업들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번 태국 전시를 계기로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482.29 (+10.34)
코스닥	682.91 (-3.21)
금리(국고채 3년)	2.873 (-0.016)
환율(USD)	1392.80 (+1.90)